

#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화와 유형별 사회성발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김경민\*\* · 최정원\*\*\* · 송지은\*\*\*\*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고 각 유형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제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2,375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SNS 이용 등을 지표로 삼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은 '소극적 소통형', 가끔씩 사용하는 집단은 '중간 소통형', 자주 사용하는 집단은 '적극적 소통형',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연락보다 친구와의 연락이나 SNS 이용을 많이하는 집단은 '친구위주 소통형',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에 비해 SNS를 통한 의사소통은 거의 하지 않는 집단은 '비SNS 소통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각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 사회적 위축, 협동심,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극적 소통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고 협동심이 낮으며 부모 및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SNS 소통형과 적극적 소통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협동심이 높고 부모 및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을 밝혔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사회성발달 특성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 사회성발달, 잠재프로파일, KCYPS 2018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제 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연구교수, 제1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수료, 교신저자, hippojw@gmail.com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수료

## I. 서 론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흔히 디지털세대라고 부른다.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언제 어디서나 시간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의 걱정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집중하여 스마트폰 과사용 혹은 스마트폰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김진희, 김정모, 김영식, 오연주, 2017; 문영주, 최은실, 2020; 조진행, 송원영, 2020). 이들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이용형태를 살펴보거나(하성보, 강승목, 201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 연구(김동현, 이승익, 임명훈, 한성훈, 2014)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스마트폰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알려주는 데 기여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여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심은혜,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스마트폰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 및 형태 혹은 중독 등을 지표로 연구하여 스마트폰의 특정 측면만이 부각되기 쉬웠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요즘 시대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Foerster & Röösl, 2017),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유형화가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성에 대해 유형화하는 연구들 중에는 변인 중심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사용하여 집단의 특성을 분류하는 연구도 있으나, 이는 분류된 집단에서 개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반면, 사람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활용할 경우 측정 문항에 응답한 패턴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된 각 계층에 소속될 확률을 계산하여 계층 간의 차이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성은모, 2017; Geiser,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접근

(person-centered approach)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SNS 이용을 기준으로 이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들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주영애, 김선주, 김우정, 2016), SNS를 통한 활발한 자기개방으로 친구들과 시공간을 초월해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근거하여(남순현, 2015; 서인균, 이연실, 2017), 친구 및 가족들과의 통화 및 메시지 그리고 SNS 이용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하고자 하였다.

유형화 결과 도출된 각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 유형간의 차이를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권소영, 박제인, 이재림, 2019).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사회성이 제시되고 있다(이중섭, 모상현, 2012). 특히 청소년기는 가정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이며, 다양한 사회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며 사회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성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성이란 한 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서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의 적응 정도를 의미한다(박은숙, 2009; Grohol, 1999).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학급이나 집단과 같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사회활동에도 잘 참여하며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다른 사람과 충돌이 적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ngelberg & Sjöberg, 2004; Kraut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을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포함하는 사회적 부적응, 협동심을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 그리고 부모자녀,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SNS 등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사회성의 형성 및 발달에 필요한 직간접적 대인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감소시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 의사소통의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하여 청소년의 교우관계 확장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김병년, 2013). 즉, 스마트폰 자체가 청소년의 발달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청소년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사회성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사소통 유형화를 통해 집단을 구분한 뒤, 각 집단별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SNS 이용을 분류 지표로 하여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군을 나누어본 뒤, 각 유형별 사회성 발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사회성 발달에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문제 1.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그리고 SNS 이용을 분류지표로 했을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은 몇 개의 잠재적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사회성발달(공격성, 사회적 위축, 협동심,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제2차년도 조사 데이터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조사에 참여한 2,3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초등학생들에 비해 급격히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키즈폰을 보유하던 초등학생과는 달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보

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특성으로 보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유형화하는 것은 미디어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대상중 남학생이 1,285명(54.1%), 여학생은 1,090명(45.9%)이었다. 부모 교육수준의 경우 아버지는 4년제 대학 졸업(36.3%),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31.5%)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 원대(23.5%), 500만 원대(19.0%), 300만 원대(17.2%) 순으로 많았으며, 77.2%의 가구가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375)

변인		n	%
성별	남	1,285	54.1
	여	1,090	45.9
부 학력	중졸 이하	46	1.9
	고등학교 졸업	692	29.1
	2~3년제 대학 졸업	471	19.8
	4년제 대학 졸업	861	36.3
	대학원 졸업	203	8.5
	모름/해당 없음	102	4.3
모 학력	중졸 이하	60	2.4
	고등학교 졸업	747	31.5
	2~3년제 대학 졸업	662	27.9
	4년제 대학 졸업	734	30.9
	대학원 졸업	120	5.1
	모름/해당 없음	52	2.2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19	5.0
	200만원~299만원	163	6.9
	300만원~399만원	408	17.2
	400만원~499만원	559	23.5

변인	<i>n</i>	%
500만원~599만원	452	19.0
600만원~699만원	268	11.3
700만원 이상	403	17.0
무응답	2	.1
최하	12	.5
하	293	12.3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보통	1834	77.2
상	218	9.2
최상	5	.2
무응답	13	.5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에서 사용한 설문문항들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류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 중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SNS 이용을 지표 변수로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특성으로는 공격성, 사회적 위축, 협동심, 부모자녀관계(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도구는 청소년이 응답하였다.

### 1)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는 배상률, 김형주와 성은모(2013)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는 스마트폰 사용 목적이 1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을 알아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 SNS 이용 항목을 활용하였다. 문자에는 카톡, 라인 등 메신저가 포함되었고, SNS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부터 ‘자주 사용한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청소년들은 각 목적별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응답하였다.

## 2) 공격성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정희(2003)가 개발한 아동 정서·행동문제 평정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수정·보완한 문항 중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이며 예시문항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5로 나타났다.

##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 행동문제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8이었다.

## 4) 협동심

협동심은 김태준, 이영훈과 오민아(2016)가 개발한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 척도 중 협동영역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3이었다.

## 5) 부모자녀관계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부모 양육태도, 두 가지

로 측정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경우, 먼저 평일과 주말에 하루 평균 보내는 시간과 분을 모두 시간 단위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평일 평균 시간에는 5를 곱하고 주말 평균 시간에는 2를 곱한 뒤 합산하였고, 다시 7로 나눈 값을 하루에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였다.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양육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별로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예시문항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다(따스함)’,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거부)’,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자율성지지)’,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강요)’,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구조제공)’,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비일관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을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거부, 강요, 비일관성은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부모가 해당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긍정적 양육행동 .91, 부정적 양육행동 .89로 나타났다.

#### 6) 친구관계

친구관계는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가 타당화한 또래관계의 질 척도 1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친구관계는 긍정적 관계(8문항)와 부정적 관계(5문항)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하위요인의 예시문항으로는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긍정적 관계 .87, 부정적 관계 .63이었다.

#### 7) 교사관계

교사관계는 김종백과 김남희(2009)의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접근가능성(3문항), 민감성(4문항), 신뢰성(4문항), 수용성(3문

항)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문항으로는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이해 시간을 내주신다(접근가능성)’, ‘선생님은 내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금방 눈치 채신다(민감성)’,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신뢰성)’,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수용성)’ 등이 있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 점수를 교사관계로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쉽고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며 교사로부터 수용되고 믿음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1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개인의 응답패턴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을 추정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모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집단을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지수(AIC, BIC, ABIC), 모형비교검증, 분류의 질, 집단 내 분류비율을 확인하였다. 정보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을 의미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모형비교검증은 조정된 차이검증(LMR-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BLRT;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s)을 사용하였다. 모형비교검증은 k개의 잠재프로파일과 k-1개의 잠재프로파일을 비교하는 것인데, p값이 유의하면 k개 프로파일을 가진 모형이 k-1개 프로파일을 가진 모형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Entropy 값을 사용하여 분류의 질을 판단하였다. Entropy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80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Clark, 2010). 또한, 구성된 집단의 크기가 25명 이하이거나 전체표본의 5% 미만인 경우, 우연히 발생한 잠재프로파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Berlin, Williams & Parra, 2014) 이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해석이 가능한 집단분류인지를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한 후에는 집단별 사회성발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를 이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하여 Mplus 6과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 잠재프로파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SNS 이용과 같은 의사소통 목적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재프로파일을 하나씩 늘려나가며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정보지수인 AIC와 BIC, ABIC는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합치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부터 3개 사이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3개 계층 이후에는 감소폭이 작아졌는데, 이는 3개 모형과 4개 이상의 모형 간의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형비교검증 결과, 3개 집단의 경우 LMR-LRT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2개 집단보다 3개 집단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값이 감소하는 추세가 완화되는 3개 모형 지점에서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잠재프로파일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4개와 5개 모형이 Entropy 지수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할당 확률 역시 수용 가능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 프로파일 분류에서는 모형의 할당확률이 .7 이하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Nagin(1999)은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모형정보적합도와 통계적 검정뿐만 아니라 잠재집단 특성의 해석 가능성, 즉 비통계적인 준거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여러 통계지표와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5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5개 프로파일 모형의 경우 정보지수 값이 이전 모형들보다 적으며 Entropy 값은 4개 모형보다 높은 .867이었다. 그리고 잠재프로파일 할당 확률은 .703에서 1.000 사이로 나타나 적절한 분류를 의미하는 .7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잠재프로파일 모형별 적합도 지수 및 5집단 프로파일 모형 정보 (N=2,375)

<i>k</i>	<i>df</i>	AIC	BIC	ABIC	Entropy	LMR-LRT <i>p</i>	BLRT <i>p</i>
2	16	24472,291	24564,655	24513,820	.956	<.05	<.001
3	22	19748,927	19875,927	19806,029	1.000	.1079	<.001
4	28	19352,538	19514,175	19425,214	.864	<.01	<.001
5	34	19039,399	19235,673	19127,647	.867	<.001	<.001
6	40	18786,892	19017,802	18890,713	.872	<.01	<.001

	잠재프로파일 할당확률					<i>n</i>	% <sup>a</sup>
	1	2	3	4	5		
잠재프로파일1	1.000	0.000	0.000	0.000	0.000	181	7.6
잠재프로파일2	0.000	1.000	0.000	0.000	0.000	536	22.6
잠재프로파일3	0.000	0.000	0.703	0.012	0.285	503	21.2
잠재프로파일4	0.000	0.000	0.047	0.874	0.078	218	9.2
잠재프로파일5	0.000	0.000	0.042	0.021	0.937	937	39.5

주) *k* = 잠재프로파일 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s compared with a (k-1) class model.

<sup>a</sup>잠재프로파일의 백분율은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음.

최종 결정된 5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집단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지표 점수는 표 3과 그림 1과 같다. 집단 1은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 그리고 SNS 이용 모두 가끔 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단 1을 ‘소극적 소통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중 7.6%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아동이 소극적 소통형에 속하였다. 집단 2의 경우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과 SNS 이용 모두 중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낮은 수준 혹은 높은 수준으로 사용하는 집단 1과 집단 5에 비해 중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간 소통형’으로 명명하였다. 중간 소통형에는 22.6%의 아동이 해당되었다. 집단 3은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고,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와

SNS는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집단 3을 ‘친구위주 소통형’으로 명명하였다. 친구 위주 소통형에는 21.2%의 아동이 해당되었다. 집단 4는 9.2%의 아동이 해당되었는데 이들은 가족 및 친구 모두와 연락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만 SNS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집단 4를 ‘비SNS 소통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5는 가장 많은 비율(39.5%)의 아동이 속하는 유형으로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 SNS 이용 모두 자주 사용하고 있어 ‘적극적 소통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집단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지표 추정평균 (N=2,375)

	집단1 <i>M(SE)</i>	집단2 <i>M(SE)</i>	집단3 <i>M(SE)</i>	집단4 <i>M(SE)</i>	집단5 <i>M(SE)</i>
가족과의 통화	2.73(.06)	3.22(.03)	2.96(.06)	3.57(.05)	3.77(.03)
가족과의 문자메시지	2.74(.06)	3.05(.03)	2.68(.06)	3.34(.06)	3.68(.04)
친구와의 통화	2.23(.05)	3.01(.03)	3.42(.06)	3.46(.06)	3.74(.02)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1.86(.03)	3.00(.00)	4.00(.00)	4.00(.00)	4.00(.00)
SNS 이용	2.28(.07)	2.55(.04)	3.60(.04)	1.42(.04)	3.6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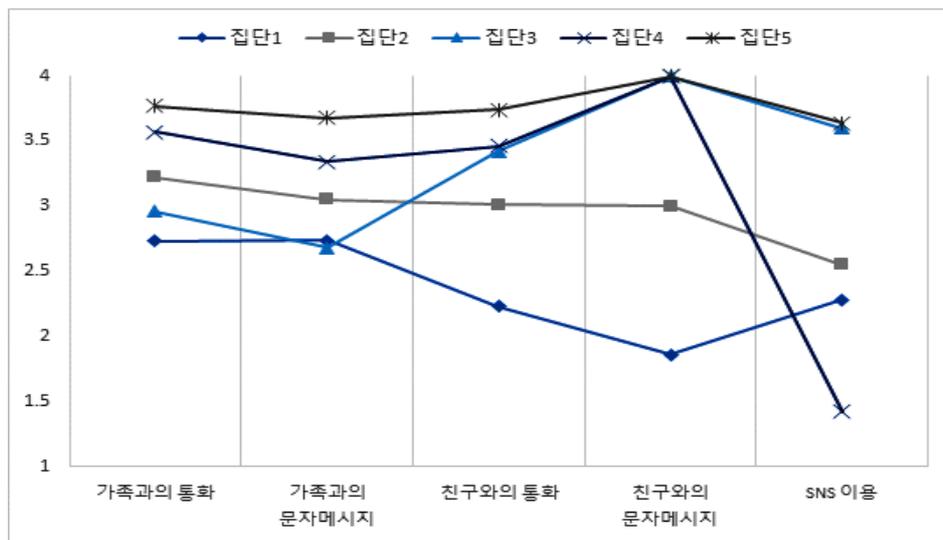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별 사회성발달

분류된 5개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 사회적 위축, 협동심,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격성은 소극적 소통형( $M=2.28, SD=.65$ )이 다른 유형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위주 소통형( $M=1.99, SD=.55$ )이 비SNS 소통형( $M=1.75, SD=.54$ )과 적극적 소통형( $M=1.80, SD=.58$ )보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역시 소극적 소통형이 다른 모든 유형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협동심의 경우에는 비SNS 소통형( $M=3.02, SD=.47$ )과 적극적 소통형( $M=3.04, SD=.48$ )이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적 소통형( $M=2.65, SD=.46$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SNS 소통형과 적극적 소통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적 소통형( $M=2.29, SD=.59$ )은 다른 모든 유형들보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중간 소통형( $M=2.08, SD=.53$ )과 친구위주 소통형( $M=2.10, SD=.49$ )이 비SNS 소통형( $M=1.91, SD=.47$ )과 적극적 소통형( $M=1.91, SD=.51$ )보다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별 사회성발달 평균비교 ( $N=2,375$ )

	소극적 소통형	중간 소통형	친구위주 소통형	비SNS 소통형	적극적 소통형	F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공격성	2.28(.65)a	1.93(.60)bc	1.99(.55)b	1.75(.54)d	1.80(.58)cd	32.84***
사회적 위축	2.44(.65)a	2.14(.69)b	2.13(.69)b	2.15(.73)b	2.07(.73)b	10.67***
협동심	2.65(.46)c	2.90(.49)b	2.88(.45)b	3.02(.47)a	3.04(.48)a	31.82***
부모자녀관계						

	소극적 소통형	중간 소통형	친구위주 소통형	비SNS 소통형	적극적 소통형	F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함께 보내는 시간	3.49(2.67)b	4.06(2.54)b	4.09(2.44)b	5.02(2.58)a	4.74(2.68)a	16.75***
긍정적 양육태도	2.85(.51)c	3.08(.47)b	3.04(.44)b	3.22(.47)a	3.28(.42)a	52.11***
부정적 양육태도	2.29(.59)a	2.08(.53)b	2.10(.49)b	1.91(.47)c	1.91(.51)c	30.89***
친구관계						
긍정적 관계	2.64(.51)c	2.95(.45)b	3.11(.45)a	3.16(.44)a	3.20(.45)a	74.36***
부정적 관계	2.27(.46)a	2.09(.47)b	2.10(.40)b	2.05(.42)b	2.02(.46)b	13.10***
교사관계	2.65(.45)c	2.73(.45)bc	2.67(.47)c	2.85(.46)a	2.80(.49)ab	10.93***

\* $p < .05$ , \*\* $p < .01$ , \*\*\* $p < .001$ .

친구와의 관계의 경우, 친구위주 소통형( $M=3.11$ ,  $SD=.45$ ), 비SNS 소통형( $M=3.16$ ,  $SD=.44$ ), 적극적 소통형( $M=3.20$ ,  $SD=.45$ )이 다른 유형들보다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적 소통형( $M=2.27$ ,  $SD=.46$ )은 다른 모든 유형들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 역시 비SNS 소통형( $M=2.85$ ,  $SD=.46$ )과 적극적 소통형( $M=2.80$ ,  $SD=.49$ )이 소극적 소통형( $M=2.65$ ,  $SD=.45$ )과 친구위주 소통형( $M=2.67$ ,  $SD=.47$ )보다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사회성발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SNS 이용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을 도출한 결과, 소극적 소통형(7.6%), 중간 소통형(22.6%), 친구위주 소통형(21.2%), 비SNS 소통형(9.2%), 적극적 소통형(39.5%)의 총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소극적 소통형은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나 SNS 이용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소통형은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과 SNS 이용 모두 가끔씩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위주 소통형은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연락보다는 친구와의 연락이나 SNS 이용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SNS 소통형은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만 SNS를 통한 의사소통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소통형은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 SNS 이용 등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소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소통형, 친구위주 소통형 순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의사소통을 위해 통화, 문자메시지, SNS를 중간 이상 사용하는 집단으로, 이러한 결과는 많은 청소년들이 메신저와 SNS를 자주 사용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메신저를 사용하여 일상적 소통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청소년들의 모바일 메신저 문화의 특징(이승형, 강기수, 2020)을 일부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정보추구와 더불어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동기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서인균, 이연실, 2017)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을 위하여 메신저, SNS 등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인중심접근법으로는 밝히기 어려웠던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의사소통 패턴 중 하나인 비SNS 소통형이라는 유형을 발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SNS 소통형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락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만 SNS 이용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스마트폰 및 SNS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SNS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온 반면, 상대적으로 비이용자들에 대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했다(정애리, 2013; Sheldon, 2012). 본 연구결과는 SNS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으며, 이들은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SNS 과의존이나 중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경우가 많았으나(e.g. 김진희 외, 2017; 문영주, 최은실, 2020; 조진행, 송원영, 2020) 앞으로는 SNS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여러 발달 영역에 걸쳐 SNS를 많이 사용하는 집단과의 비교하는 연구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있어서 SNS의 가치나 문제 및 개선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집단별로 최적화된 접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별로 청소년의 사회성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적 부적응과 적응, 대인관계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부적응의 경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모두 소극적 소통형이 다른 모든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이 부모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공격적 성향을 발달시키지만 의사소통 방식이 긍정적이면 공격적 행동을 적게 하는 등 문제행동이 낮아진다는 결과(강경옥, 조춘범, 김정화, 2018; 전숙영, 2015)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여가사용의 의존적 도구로 인식할수록 공격성과의 상관이 높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는 경우에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김병년, 2013; 김소영, 2016) 스마트폰 활용 자체가 공격성을 높인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스마트폰이 적절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 어떠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질적 측면을 더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일들은 청소년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어 양질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일반화된 생활 도구인 스마트폰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적응을 살펴보면, 협동심은 비SNS 소통형과 적극적 소통형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은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이 모두 활발한 것이 공통점인데, 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이 타인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고 갈등상황에서도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성화, 김희화, 2016).

다음으로, 대인관계의 경우 비SNS 소통형과 적극적 소통형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적 소통형은 전반적으로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비SNS 소통형과 적극적 소통형이 대부분 긍정적인 형태를 보였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다른 집단들보다 많았으며 부모양육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반면 소극적 소통형과 중간 소통형, 친구위주 소통형은 비SNS 소통형과 적극적 소통형보다 부모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자녀 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면 가족의 응집성을 높이고,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서지은, 김희정, 2012; 하용길, 함경애, 천성문, 2018)와 같은 맥락에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사소통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사나 정서를 쉽게 표현하고 서로에 대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바쁜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가족 내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가족 내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 간 애정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관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친구와 통화 문자메시지를 활발하게 주고 받는 유형이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친구위주 소통형, 비SNS 소통형과 적극적 소통형이 다른 집단들보다 또래관계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소극적 소통형은 다른 집단들보다 친구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친구위주 소통형은 부모와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지각했으나 친구관계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은 낮춰주어 중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김현주, 박소리, 김하늬, 이효경, 손은령, 2019) 청소년기의 친구관계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또래 간에 지지를 주고받는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의 관계는 비SNS 소통형과 적극적 소통형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적 소통형과 친구위주 소통형은 중간 소통형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사와의 소통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소통형이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 기술이 증가되었기 때문(Baruah, 2012; Ling, 2010)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SNS 소통형과 적극적 소통형은 부모자녀, 친구, 교사 등 모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사회적 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사소통은 사회적 자원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초기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나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고 청소년의 안녕감의 수준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Bae, 2019; Ling, 2010)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는데 있어 스마트폰을 주요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사회성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 종단자료를 활용한다면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을 살펴보았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이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구들과의 소통 및 SNS 이용이 잦아질 수 있으며 점차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 역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스마트폰 연구에서 중독이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을 밝혔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사회성발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경옥, 조준범, 김정화 (2018).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23-42. doi:10.17997/SWRY.63.1.8
- 권소영, 박제인, 이재림 (2019). 청년의 자아분화 유형 및 유형별 특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3), 19-36. doi:10.7466/JKHMA.2019.37.3.19
- 김동현, 이승익, 임명훈, 한성훈 (2014). 스마트폰 기반의 학우 간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개발. **한국IT마케팅학회 논문집**, 1(1), 199-200.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4), 208-217. doi:10.5392/JKCA.2013.13.04.208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소영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우울,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적용. **중등교육연구**, 64(2), 315-336. doi:10.25152/ser.2016.64.2.315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 (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진희, 김정모, 김영식, 오연주 (2017). 청소년의 SNS 과의존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6), 155-178. doi:10.21509/KJYS.2017.06.24.6.155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10.21509/KJYS.2017.03.24.3.313
- 김태준, 이영훈, 오민아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주, 박소리, 김하늬, 이효경, 손은령 (2019). 학교급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175-197. doi:10.22251/jlcci.2019.19.6.165
- 남순현 (2015). 청소년의 성격, 애착, 온라인 자기개방,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2.

- 문영주, 최은실 (2020).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대인불안과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7), 77-108. doi: 10.21509/KJYS.2020.07.27.7.77
- 박은숙 (2009). 인터넷 중독 성향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연구**, 9(1), 1-35.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서인균, 이연실 (2017). 청소년기 스마트폰 이용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9, 69-93.
- 서지은, 김희정 (2012).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0(3), 457-486. doi:10.21479/kaft.2012.20.3.457
- 성은모 (2017).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활용, 유형분류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유용성, 학습민첩성, 학업성취도의 차이 분석: 잠재계층분석(Laten class analysis)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3), 631-655. doi:10.15833/KAFELIAM.23.3.631
- 심은혜 (2018).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세대와의 의사소통. **신학지평**, 31, 141-183.
- 이성화, 김희화 (2016).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친구간 긍정적 갈등 해결전략 간의 관계: 조망수용의 매개효과와 공격성의 중재효과. **인지발달 중재학회지**, 7(3), 105-121.
- 이승형, 강기수 (2020). 청소년 모바일 메신저 문화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교육사상연구**, 34, 159-185. doi:10.17283/jkedi.2020.34.1.159
- 이중섭, 모상현 (2012).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291-308.
- 전숙영 (2015).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공격성: 학령 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놀이치료연구**, 18(1), 1-19. doi:10.16894/KJPT.18.1.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애리 (2013). 소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SNS 비이용자 (non-user) 개념에 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43, 54-63.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진행, 송원영 (2020).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SNS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8(1), 493-514. doi:10.35151/kyci.2020.28.1.021
- 주영애, 김선주, 김우정 (2016).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바일 이모티콘의 긍정적 사용 형태연구: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5), 35-52.
- 하성보, 강승묵 (2011). 스마트폰의 이용형태와 이용환경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 고찰: 미디어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89-98.
- 하용길, 함경애, 천성문 (2018). 부모-자녀의 자아탄력성이 의사소통을 매개로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19(2), 259-289. doi: 10.15818/ihss.2018.19.2.259
- Bae, S. 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use for communication,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n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ple latent growth model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6, 93-99. doi:10.1016/j.chilyouth.2018.11.032
- Baruah, T. D. (2012).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as a tool of communication and its potential for technology enabled connections: A micro-leve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s*, 2(5), 1-10.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doi:10.1093/jpepsy/jst084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 Engelberg, E., & Sjöberg, L. (2004). Internet use, social skills, and adjustment. *Cyber psychology & behavior*, 7(1), 41-47. doi:10.1089/109493104322820101
- Foerster, M., & Rössli, M. (2017). A latent class analysis on adolescents media use and associations with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1, 266-274. doi:10.1016/j.chb.2017.02.015

- Geiser, C. (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Data analysis with Mplus*. New York: Guilford Press.
- Grohol, J. M. (1999). Too much time online: Internet addiction or healthy social interactions?. *Cyber Psychology & Behavior*, 2(5), 395-401. doi:10.1089/cpb.1999.2.395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 doi:10.1037/0003-066x.53.9.1017
- Ling, R. (2010). *New tech, new ties: How mobile communication is reshaping social cohesion*. Cambridge: MIT press.
- Nagin, D.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139. doi:10.1037/1082-989x.4.2.139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doi:10.1080/10705510701575396
- Sheldon, P. (2012). Profiling the non-users: Examination of life-position indicators, sensation seeking, shyness, and loneliness among users and non-users of social network si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5), 1960-1965. doi:10.1016/j.chb.2012.05.016

## ABSTRACT

### Adolescent's communication type through the use of smartphones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social development: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Kim, Kyungmin\* · Choi, Jungwon\*\* · Song, Ji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dolescent's profiles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use of smartphones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social development.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2nd wave). The sample consisted of 2,375 children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Latent profiles analysis on communication through the use of smartphones among adolescence identified five profiles: a 'passive communication type', 'medium communication type', 'friend-oriented communication type', 'non-SNS communication type', and an 'active communication type.' One-way variance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social development according to each type. The 'passive communication type' had higher levels of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nd perceives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negatively than the other types. On the other hand, the 'non-SNS communication type' and 'active communication type' showed higher levels of teamwork than other types and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communication through the use of smartphones, adolescent, social development, latent profile

투고일: 2021. 2. 26, 심사일: 2021. 5. 4, 심사완료일: 2021. 5. 11

---

\* Research professor, BK21 FOUR R & E Center for Sustainable Living System, Korea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